

# 전북방문의 해 발로 뛰는 현장홍보 본격화

### 도, 오는 10월까지 전국 대도시권·주요행사장 돌며 전북투어패스·지역축제 등 홍보

전북도가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서울 등 대도시권 및 전국 주요행사장 현장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는 올해 대규모 국제대회를 많이 개최된다.

5월 FIFA U-20 월드컵 대회와 6월 WTF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7월에는 제1회 선유8경 국제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무술 문화교류축제를 개최하는 등 연중 행사 축제가 계속된다.

이에 전북도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SNS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나,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현장홍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5일부터 27일까지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석해 전북 관광을 홍보하게 된다.

청소년박람회는 연인원 16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로 주요 관람층이 청소년, 가족단위임을 고려해 전북도에서는 맞춤형 수화여행 프로그램, 전북투어패스, 여름철 가족휴양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의 관광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지난 13일 발대식을 가진 전북관광 홍보사절단도 참석해 다트 던지기 이벤트, 전북관광 퀴즈 등 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지능정보산업 전문가 포럼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5일 전주 아르다온컨벤션센터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지능정보 분야 전문가, 도내 혁신기관, 기업,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개념과 핵심기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전문가 포럼 행사를 가졌다.

채로운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대비해 서울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여름휴가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선유8경 국제페스티벌(7월 7~9일), 8월말 무주반딧불 축제 등 여름철 지역축제와 도내 오토캠핑장, 산림욕장 등 휴가지 정

보를 상세히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이후에는 시군별 가을축제와 도내 유명 관광지 등을 10월까지 전국을 돌며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된 '제6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 참석해 전북홍보관을 운영했다. 농업박람회는 연인원 17만명이 참석

한 대규모 행사로서 관람객들은 군산의 선유도, 무주 반딧불축제 및 깃벌 체험 등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육흥기 관광총괄과장은 "꾸준한 수도권 홍보활동으로 작년에도 관광객 유치가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관광 홍보사절단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현장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 '멕시코시티 세계우정문화축제' 참가 중

### 도, 6월 4일까지 전통문화자원 활용 다채로운 행사 진행

전북도는 멕시코 한국문화원과 함께 20일부터 6월 4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되는 '멕시코시티 세계우정문화축제'에 참가 중이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세계우정문화축제는 90여개 국가가 참가하고 약 35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전 세계 축제의 장으로, 전북도는韓 스타일 중심지로써 지역의 고유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일부터 24일까지는 국립문화 박물관과 멕시코 한국문화원에서 각각 한지공예 및 한복입기 체험과 전시가 진행됐으며, 소칼로 광장에 위치한 메인부스에서는 행사 기간 전일 동안 전북도의 한지공예, 한복 전시와 한글서예퍼포먼스가 진행됐다.

22일에는 소칼로광장 야외무대에서 멕시코 현지모델들의 한복, 한지드레스 패션쇼를, 23일에는 멕시코시티 시립극장에서 전북 대표 전통공연단인 모악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으며, 두 공연을 관람한 멕시코 현지인들은 전북도의 멋과 흥에 감탄했다.

특히 23일 전북 모악공연단의 사물놀이 공연에서는 주멕시코 오스트리아 대사를 포함, 이집트, 모로코 대사 등 현지 외교단도 참석해 전북 소리의 정통성에 찬사를 보냈다.

24일에는 역사지구 내 옛 상원의회에서 양국의 외빈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경이'라는 제목 아래 2023 세계잡버리 새만금 유치를 지원하는 리셉션이 개최됐다.

/안재용 기자

## 도,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운영

전북도는 도교육청 및 시군과 함께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생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억원의 예산으로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통학택시 사업을 통해 군산시 등 12개 시군에 193대의 택시(버스)를 활용해 740명(상반기)의 등·하교 통학길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생의 등·하교에 따른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농어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학택시 지원은 지난 2015년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1,238명이 이용했고, 올해에는 연간 1,000여명에게 편의 제공을 목표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 국가5대 암검진 미리 받으세요

전북도는 매년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가 몰려 불편이 반복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건강검진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들의 건강검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 미리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1:1전화로 안내하고 있다. 암 검진 대상자는 위암·간암·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이며, 연간 약 22만여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암은 상당부분 진행될 때까지 특이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보건소, 도청 건강안전과(280-4674)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 전북도,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 2곳 선정

### 무주 구천동천·부안 직소천, '지방하천정비 신규사업' 지구로 반영돼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에 '무주 구천동천·부안 직소천'이 최종 선정돼 '지방하천정비 신규사업' 지구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은 하천의 다양한 기능과 지역발전 전략이 연계·추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융합모델을 지역 제안공모로 발굴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36개소가 응모해 각 지자체 간 뜨거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으며,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의 심도 있는 경쟁 끝에 전국 14개소 중 전북도에서 2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동안, 전북도 및 해당 시군에서는 하천사업 제안공모 선정에 위해 공모

대상에 적합한 하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구간에 대한 중요도 및 사업계획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건의했다.

또한 평가를 앞두고는 해당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준비사항 논의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와 협업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 이번 공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무주 구천동천은 구천동 관광특구지역의 중심거점지로 덕유산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생태계 연속성 확보 및 다양한 여가를 위한 수변문화공간 확충으로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하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안 직소천은 변산면 중계리 일원의 새만금 남측과 접해 있는 지역으로 하천 본래의 치수적 기능 외에 생태적·친수적 기능을 부여해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생태계 탐방 및 학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2023년 세계잡버리 대회 유치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2개소가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도와 해당 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협업의 롤 모델이 됐다"며, "지역여건 및 특색을 반영해 치수·친수·관광·문화·생태가 어우러지는 생동감 있는 하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 김일재, 부안 뽕의도리 방문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5일 현장에서 구하는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부안 뽕의도리를 방문했다. 지난해 6차산업 인증을 받은 뽕의도리라는 인증 전인 2015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125%(3억6100만원→4억5200만원), 종사원도(4→10명) 대폭 증가했다.

특히 유통·홍보사업을 통해 유통망 확대에 주력해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업소득 전체, 고품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농가, 향토기업이 한마음으로 똬를 뚫어 자생적 역량강화 한다면 '농업 농촌에도 돌파구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안재용 기자

## '환경전문가 워크숍' 성료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최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구축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제6회 환경전문가 워크숍'이 25-26일 일정으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도의회 조병서 부의장 및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도시·군 환경관련 공무원, 환경유관기관, 기업체 등 환경전문가 약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빅데이터 활용 미세먼지 원인분석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